

“

영국 텔레그래프 선정!



마추픽추 만큼이나 감동이었던!

잉카테라 아시엔다 우루밤바

(Inkaterra Hacienda Urubamba)

우리에겐 낯선 호텔이지만 1975년부터 호텔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있는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페루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니 제가 안가볼 수가 없겠죠?

페루의 쿠스코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수많은 호텔이 있는데요

벨몬드 호텔과 더불어 페루 최고의 럭셔리 호텔입니다.

Inkaterra Hacienda Urubamba - The Experience

The Experience Inkaterra > Inkaterra Hacienda Urubamba > The ...

www.inkaterra.com





호텔의 대문은 으리으리~ 아무나 못들어가요!

우루밤바에서도 차로 15분 정도 더 안쪽에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용하게 안데스 산맥의 느끼고자 하는분은 감동하실꺼예요
 한참 비포장 도로를 들어와서야 호텔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입구에서 투숙객을 확인을 꼼꼼히 하는 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화같은 한쪽의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완벽하게 그림같은 한 장면!
 동화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 순간!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에 멍 하니 바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의 중앙의 큰 건물은 로비와 식당이 위치해 있는 메인 건물이고
 그 위로 언덕으로 독립된 빌라가 있는데요
 저는 독립된 빌라 방갈로에서 묵었어요





보고 있어도 계속 놀라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

쿠스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버를 이용해서 60솔이 나왔답니다.
 다시 쿠스코로 돌아갈때도 아저씨께서 픽업을 해주셔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했어요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메인건물인 로비로 들어섭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함과 소품 하나하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호텔입니다.





소품하나하나 잉카의 느낌가득한 작품이랍니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가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웠어요!

언뜻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사입니다
 가만히 풍경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놀랍고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잉카테라 호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진 호텔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다만 아름다운지 알았는데 산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게 놀라웠답니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호텔 로비가 있을까요?

체크인 할 때 페루의 전통음료인 치차마리나를 웰컴드링크로 주셨어요
옥수수과 감자 등등...페루에서 생산되는 야채와 과일음료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맛이 낫설었지만! 계속 먹다보니 맛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좋겠죵

처음에는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한 이 호텔을 사람들이 많이 알까? 싶었는데
이미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라 거의 풀북이였습니다.
투숙객의 90프로가 유럽사람들이고 동양인은 한명도 없어서 안타가웠어요



먹다보니 중독성 있는 치차마리나

로비에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도 대충 놓은것이 아니라 보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페루의 전통을 살린 고급스러움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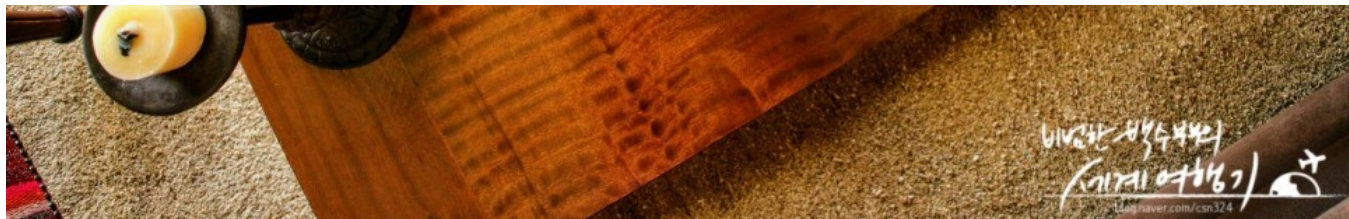
진짜 유럽사람들 딱 좋아하는 스타일;
블로그에 호텔 후기가 하나도 없고 저를 일본사람으로 보는걸 보니...



한국사람중 제가 최초가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멋진 페루의 호텔! 한국분들도 많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곳은 널리널리 공유하라는 ㅎㅎ





멋진 소품들에도 반했습니다.

안쪽에도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녁때는 이곳에서 직접 장작불을 지펴서
 더욱 느낌있고 뭐랄까...이렇게 목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이었답니다.
 호텔을 많이 다녀봤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 넘치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낮에도 멋지만 저녁은 더 느낌있는 곳으로 +_+

드디어! 저의 빌라로 향합니다!

푸른 초원위에 뷰가 멋진 곳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림같은 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니 남편과 저는 넘나 설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호텔 사진을 이미 보았지만 실제로보니 더욱 감동이 컸어요!





아늑한 빌라로 들어갑니다!

빌라로 올라갈 때는 버틀러분이 같이 버기카를 타고 동행해 주셨어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요 잉카테라 호텔이 이곳에 호텔부지를 구매하고 호텔을 짓고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해요





버틀러분 감사드려용! 헤헤...

빌라의 내부는 어떨까요?!

역시 제가 상상했던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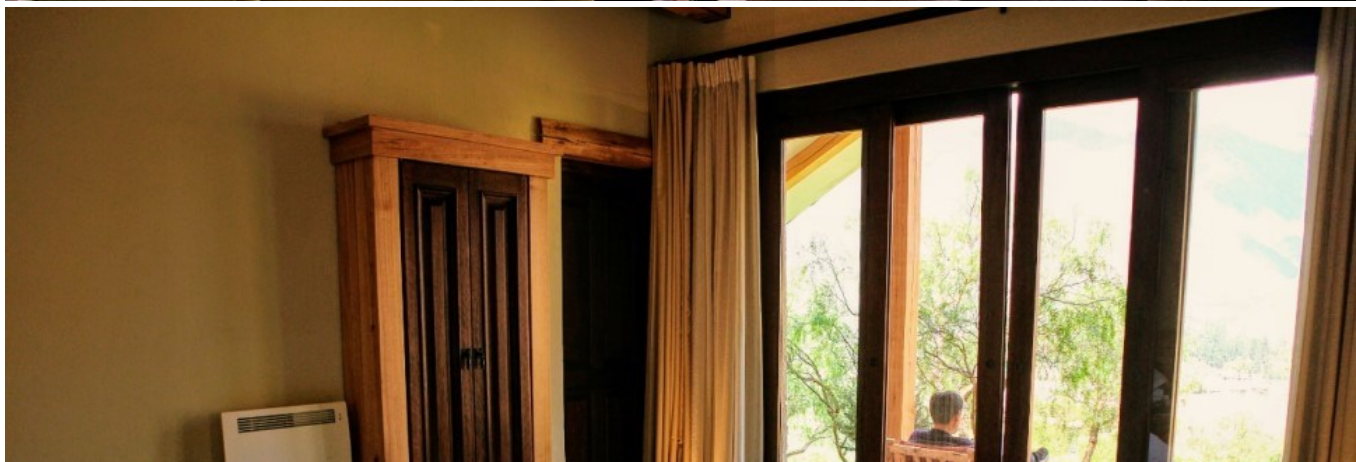
소품들 하나하나 섬세하고 고급스러움이 놀라움은 물론이구요

거실도 너무 넓어서 좋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벽난로 입니다



불을 지펴달라고 말하면 파이야!

느낌있게 불을 지피면서 잘 수있어요





넓은 거실과 함께 페루의 스타일을 느낄수 있어요

침대도 역시 넘나 넓고 푹닥푹닥~

라벤더 향기 가득한 바구니에 DND카드가 있고 웰컴레터도 있었답니다.
잉카테라 라고 적혀있는 작은 파우치는 웰컴 기프트라고 해서 더욱 좋았어요





말린 라벤더가 너무 향긋해요~

놀랍게도?! 아래 색 뭉치가 열쇠입니다

넘나 커서 들고다니기 번거로우시면 로비 바구니에 맡기실 수 있어요
처음에 키가 커서 당황했는데요 이것도 페루 스타일로 센스있어요 ㅎㅎ

테이블 위에는 피스코 샤워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매일 주는것은 아니고 체크인 할때 한번만 주는거랍니다 ㅎㅎ
저 뿐만 아닌 다른분들도 매일 주는거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실망...ㅋㅋ





추울까바 센스있게 핫팩도 준비되어 있네요

세심함은 정말 끝이 없어요!

거실에 장작불을 뿜 수도 있고 따뜻하게 침대옆과 화장실에 히터도 있는데
그래도 추울까 핫 팩도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전화로 0번을 누르고 요청하시면 따뜻한 물을 채워서 침대안에 넣어 주신답니다

사실 이렇게 난방시설이 여러가지로 되어있어서 엄청 춥나? 걱정했는데
해발 고도가 쿠스코보다 낮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추웠다는 사실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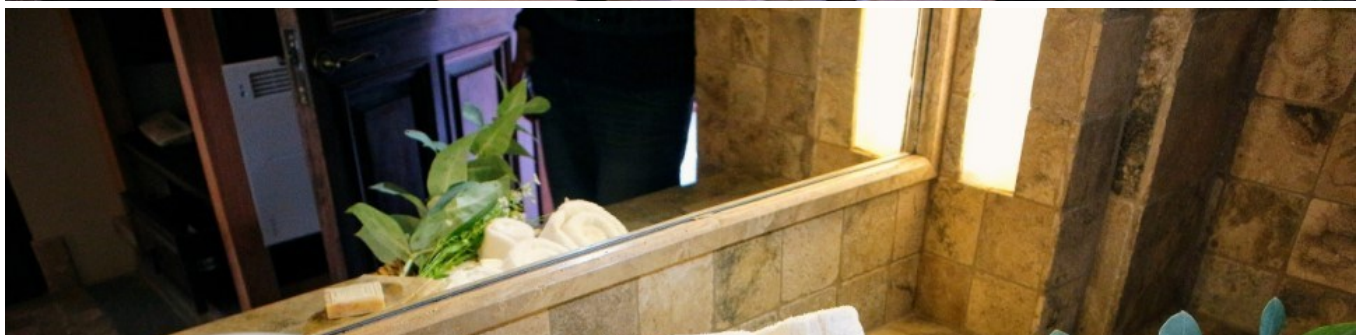
커피도 내려 마실수 있고 화장실엔 가운도 있어요

화장실도 따뜻한 느낌있는 인테리어

세면대와 화장실과 샤워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검정색의 아날로그한 수도꼭지와 샤워헤드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쁜 포장지로 리본묶어 놓은게 뭘까? 싶었는데 특별한건 아니고 휴지였답니다 ㅋㅋ





비누도 수제 허브 비누이고
 샴푸와 컨디셔너도 모두 친환경으로만든 제품이라서 더욱 좋았어요
향도 너무 좋고~ 잉카테라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인가봐요
 용량도 샴푸는 85미리 컨디셔너는 100미리 이렇게 엄청 대용량이라합니다 ㅎㅎ





남아서...가져왔다는건 안비밀 ㅋㅋ

세심한 서비스와 멋진 인테리어 소품 다 좋지만 그중에서 최고는 바로!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발코니 에서 보는 그림같은 풍경이랍니다



한참을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무슨말도 필요 없는 멋진 풍경!



페루의 마추픽추도 정말 멋졌는데 이 곳에서의 기억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림같은 곳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비밀한 행복의
세계 여행기

blonoway.com/cen374



주요코스를 볼 수 있는 것고 거기서 중요 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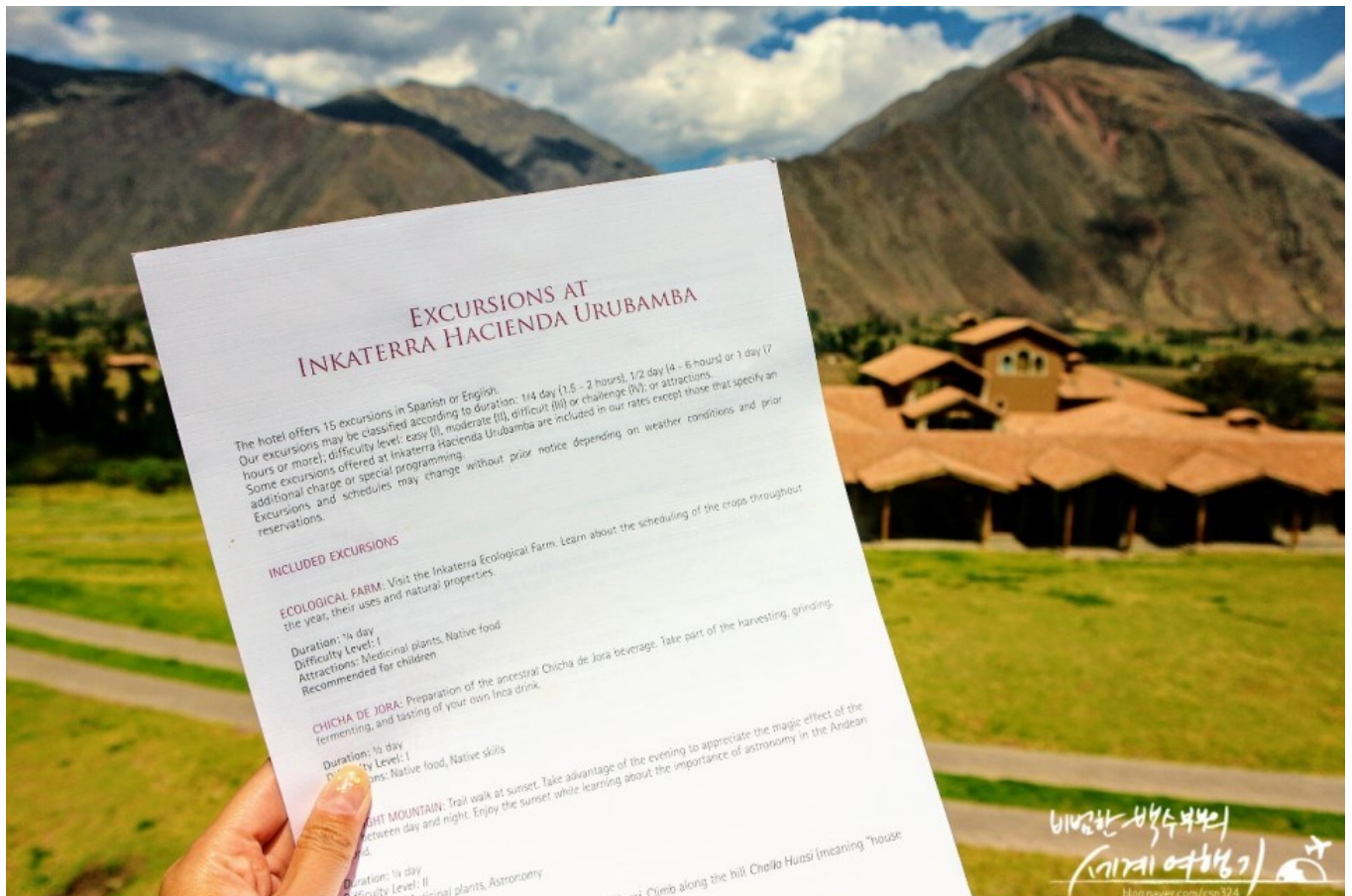
밤에 이클립스 라는 별자리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깜깜한 밤에 달빛과 촛불에 의지하여 트래킹을 하며 별자리를 배우는 투어는

정말 매력적이고 잊지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를 보면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7시 반이 너무 빠름...

늦게인나서 못했다는 슬픈이야기...포르르



비밀한 여행사의
세계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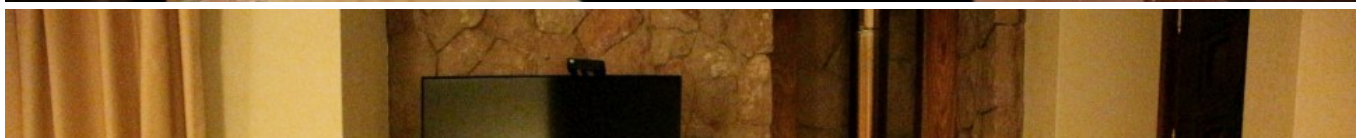


요렇게 이쁜 새가 있다는데...보지못해쓰여

별자리 투어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와보니 턴 다운을 하고 가셨어요
우렁각시가 다녀오면 방이 깨끗해져요

벽난로에 장작을 피우고 타닥타닥 소리를 들으며 커피와 함께...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국적이고 편안하고 고급스럽기도한
페루에서의 잊지못할 기억이었어요





벽난로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남표니

페루의 느낌이 가득한.

페루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계곡과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움 그 안에서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준

잉카테라 아시엔다 우루밤바

([Inkaterra Hacienda Urubamba](#))



남미여행은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페루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잉카테라 호텔에서 한번쯤 묵어주세요

1박에 60만원 정도의 호텔이지만

6만 달러의 그림같은 풍경과 경험!

인생에서 한번뿐인 남미여행에서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준 곳이었답니다.

Inkaterra Hacienda Urubamba

Km 63 of the Cusco-Urubamba-Pisac-Calca Highway, Sacred Valley of the Incas, 페루